

“국정 역사교과서 발간 당장 중단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 “교육부 강행 추진 엄중한 시국에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

전북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발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간을 예정대로 강행 추진, 엄중한 시국에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 부총리가 이러한 발언을 한 시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분노한 국민들이 연일 거리를 매우며 촛불을 들고 나서던 때였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최순실 국정농단 등 혼란한 시국에 국민적 갈등만 야기하는 국정교과서 발간을 추진, 여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애초에 교과서 국정화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일방적인 정책이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집필기준에서부터 집필진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감금이 집필로 공신력을 추락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엄중한 시국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당장 철



마을재생박람회 전주서 열려

9일 전주시서혁신센터에서 마을재생 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농악단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대통령의 인식과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10월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반역사적인 인식에 기반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한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든 국민들의 외침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몇몇 개인의 비리와 일탈로 치부하고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안간힘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더 큰 분노만 자아낼 뿐이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일방적인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국정교과서 발행 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재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쌀과자 편강 출시

지역농산물을 활용 세가지 색과 맛 지닌 3색3昧 '자연을 품은 쌀과자 · 배를 품은 편강'

전주에서 생산되는 쌀과 생강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세가지 색과 맛을 지닌 3색3昧의 쌀과자와 편강제품이 개발돼 지역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은 9일 전주푸드직매장 1호점(송천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한 ‘자연을 품은 쌀과자와 배를 품은 편강’ 제품을 대한성과품평회와 함께 매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가졌다.

전주시 마을기업 허봉마을(대표 김수정)과 함께 개발한 쌀과자와 편강 제품은 기존의 백미와 생강 외에 흑미와 홍미, 강황, 백련초, 부추, 배 등을 활용한 것으로 다양한 색과 맛에 더해

효능까지 높였다는 평가다.

“자연을 품은 쌀과자”는 각각의 쌀들이 가진 자연적 효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찹쌀의 비타민D·E, 흑미의 안토시아닌, 현미의 폴리페놀, 홍미의 안토시아닌, 강황의 케루민 성분 등이 함유된 농산물로 직접 제조돼 향산화 및 눈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의 하얀 쌀과자의 형태에서 벗어나 흑미와 홍미, 강황 등으로 색을 입히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배를 품은 편강은 생강에 백련초와 부추, 강황을 소재로 색과 맛을 냈으며, 전주배의 배즙으로 당분을 가미해 설탕 함유량을 크게 낮췄다. 정승일 연구부장은 “일반적인 편

강제품은 생강에 설탕을 넣어 가공한 것인데 반해 배즙으로 생강의 매운 맛을 줄이고, 설탕 사용을 최소화했다”며 “백련초와 부추, 강황 배를 소재로 편강으로 가공하면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를 성분이 증가되어 항균효과 및 소화 촉진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전주시가 이날 성과품평회와 함께 전주푸드 3개 직매장에서 동시에 출시한다.

허봉마을 김수정 대표는 “도시에서 있는 마을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개발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연구기관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되서 제품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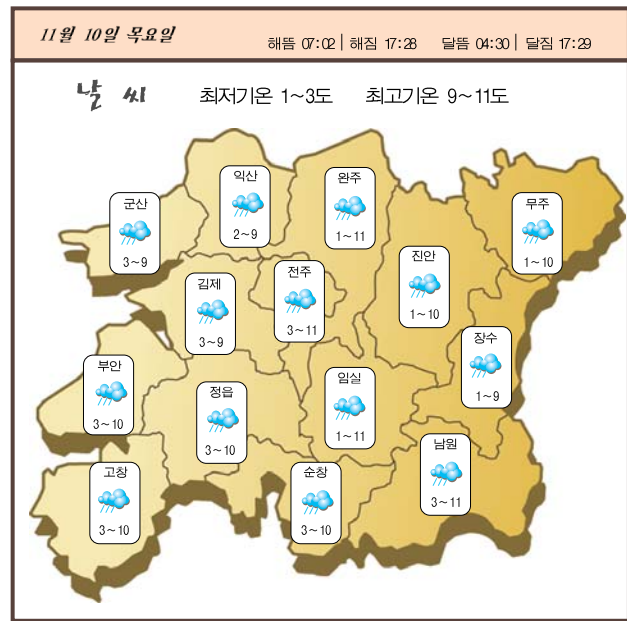
한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판로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날 또 쌀과자와 편강 외에 전주시 농산물을 소재로 개발한 제품 시식회와 전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전주콩나물영농조합과 함께 콩나물 콩으로 만든 두유와 두부, 복분자 음료에 전주배와 복숭아를 가미한 음료 시식회와 함께 전주시 관내 기업들과 개발한 건강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 등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양열 원장은 “전주시 연구기관이 직접 지원한 마을기업의 제품개발 성과를 토대로 건강과 안전은 물론 창의 융합형 R&D형 제품개발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며 “전주시 농산물을 활용한 창의적 제품개발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을기업 활성화는 물론 전주푸드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전북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 14일부터 운영

전북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대입 수능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장 설치와 교통대책 등을 담당하는 종합상황실은 도교육청과 6개 시합지구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종합상황실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응급을 위해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사업체의 아침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 요청하는 등 수능관리체계에 불응한다.

또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은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수송차량을 지원하며 교통 통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대책으로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을 강화한다.

/고민형기자

특히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산기와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어야 한다. 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부착 여부 확인도 진행된다.

또 학생수가 적은 동일 학교 학생들이 같은 시험장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 혼합 시험장을 구성하거나 수험생 배치 숫자를 줄이고,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은 전북도내 6개 시합지구 62개 시험장에서 2만,064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찬회 개최

전주시의회가 제336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16 의원 연찬회가 9일~10일까지 이틀간 부안 해나루가족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3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대비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이날 의원들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지방행정 현장사례 이해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기법’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고 2017년 본예산안 등 예산 심의와

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갖는다.

또 황선철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핵심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강의로 진행된다.

김명지 의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